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2차 논술 예시문제

## 인문계열



성명	
전형	
수험번호	

**문제 1 (50 점)**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시험 시간은 120분임.
- 검정색 볼펜을 사용할 것.
-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시나 불필요한 낙서가 있으면 0점 처리함.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와 현대의 문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서가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하다는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내게 불의한 행동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가해자의 불의한 행동이나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다. 고대의 문헌들에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예를 들어 유대 경전에서 요셉은 자기를 시기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방치했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지니게 되었다. 몇 년 후 형제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대신에 사랑을 보였고, 기꺼이 형제들을 받아들였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방탕한 아들 이야기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패륜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죄를 자청하고 용서를 구하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불교에서는 질투심 있는 왕에 의해 심하게 맞았지만 그 왕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인 은둔자 이야기가 있다.

문학 작품에서도 용서에 관한 것들을 진지하게 다룬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 상인>(Merchant of Venice)의 샬력은 빚의 두 배를 갚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에 정확한 벌금인 한 파운드의 살을 요구한다. 포티아(Potia)는 젊은 변호사로 위장하고 연설문을 통해 샬력에게 다음과 같이 자비를 구한다. “질적인 자비 행위는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처럼 땅으로 내린다. 땅에 내리면 그것은 두 배의 축복이 된다. 주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 된다. 그것은 최고로 강한 것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이다. 그것은 왕권보다 더 좋은 왕권을 쥔 군주가 된다.” 그러나 샬력은 용서하기를 거부한 결과로 끔찍한 비극을 맞는다.

용서하기를 거부해서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용서하기로 한 선택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에서 예시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소설의 첫 부분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친 혐의로 19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에 장발장은 자신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단 한 사람인 몽세이네 미리엘에게서 절도 행위를 계속한다. 장발장이 경찰에 잡혀 끌려왔을 때, 미리엘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발장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결과적으로 장발장은 소설의 전체에서 많은 고통과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회개하면서 명예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나)

가해자가 그 행동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면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동했을 때에만 용서가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실수를 한 사람이 고의로 하지 않았어도 용서하는 것은 유익하고 가능하다. 마사(Martha)는 죽은 그녀의 남편에게 화가 났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들어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남편의 죽음은 마사에게 잘못된 행동이었다. 마사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분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더라면..., 폭우에 조금만 천천히 운전했더라면... 마사의 용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자신을 먼저 두고 간 남편을 용서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복수심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에 대해 화를 내고 원망의 감정을 가진 데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브랜드는 일곱 살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가 심하게 아픈 여동생을 돌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 그리고 브랜드는 여동생이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랜드는 부모님이 자신을 방치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그런 분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결혼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꼈고, 또한 자신이 이런 감정을 품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 브랜드는 그의 부모와 여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다. 브랜드는 자신의 분노감과 죄의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다)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진다. 자신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자신의 고통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잘못된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쏟아내는 경우보다 분노가 크고, 복수심도 아주 강하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도 크다. 피브(Phoebe)는 남편의 사업 동업자 때문에 딸이 자살을 했다고 여겨, 그 동업자에 대해 깊은 분노감과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사업의 실패가 가정에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딸이 우울해져서 자살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딸은 사춘기 시절부터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딸의 죽음은 남편의 사업 실패와는 무관했다. 피브는 딸의 죽음과는 연관성이 없는 남편의 동업자에게 자신의 분노감을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남편의 동업자가 졸속한 판단을 해서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 피브의 분노 감정이 그녀 자신을 사로잡았기에 자신의 건강도 해치고, 살아 있는 자녀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피브와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상담자는 피브가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 상담자는 설령 남편의 동업자가 딸의 죽음에 원인이 된다고 해도 피브가 현재 받고 있는 가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업자를 용서할 것을 권장했다. 피브는 용서를 한 후에야 차츰차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음부터 가해 행위와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서한 후에야 비로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용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초기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입었음을 깨닫게 된다.

(라)

한국인 지수와 미국인 데이브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만나 서로 좋아하게 된 연인사이이다. 어느 날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지수는 잘 아는 한 무리의 한국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지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데이브의 손을 놓고 몇 걸음 떨어져 걸었다. 지수는 그들에게 데이브를 학교 친구라고 소개했고, 한국인들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때 데이브는 실망감과 불쾌감을 느끼며 지수에게 한국인들에게 자기와의 관계를 솔직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당황한 지수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의 교제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경험을 한 데이브는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다그쳤다.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과의 교제에 비교적 개방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미국인 데이브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연연해하는 지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편견을 지니는 한국인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에 지수는 동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한국의 문화권에 젖은 여성이었다. 지수는 나보다 먼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연연해하며 체면이나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이브를 야속하게 느꼈으며 더욱이 자신의 솔직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데이브가 쌀쌀맞게 느껴졌다.

지수는 데이브와 몇 차례 더 논쟁을 벌인 후에 화가 나서 대화를 중단하고 침묵하기 시작했다. 한국 여자인 지수의 침묵은 자신이 빠졌다는 신호였으나, 미국인 데이브는 지수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자 자신과 말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작별 인사를 대충하고 헤어졌다. 대부분 한국 남자처럼 자신이 빠진 것을 눈치를 채고 자신의 화를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지수는 그런 데이브가 더 냉혈한처럼 여겨졌으며 그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지수와 데이브의 갈등이 심각해진 주된 원인은 문화적 차이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의 차이, 침묵이 갖는 의미와 역할의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가), (나), (다) : Robert D. Enright (저), 채규만 (역), <용서는 선택이다>, 학지사, 2004.

(라) : 정현숙, 갈등관리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문제 1-1] (가), (나), (다)는 모두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 (나), (다)를 비교·대조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하여 300(±30)자로 할 것 (20점).

[문제 1-2] (라)에서 ‘지수’와 ‘데이브’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가), (나), (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어떻게 용서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적합한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하여 400(±40)자로 할 것(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은 자기개념과 관련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동기(motivation)에 관한 글이다.

(가)

‘자기’와 관련해서 두 갈래의 동기적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기’의 일관성(consistency)을 지향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고양(enhancement)을 지향하는 힘이다. 전자는 자기 확인(self verification)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자기 지각들 간의 일치성, 그리고 자기 지각과 유입되는 정보들 간의 일치성을 발견하려는 인지적 요구이고, 자기 고양은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정보를 발견하려는 감정적 요구를 지칭한다.

(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려는 욕구는 많은 문헌들에서 언급되어 왔다. 사람들은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성공은 자신에게로 돌리는 방어적 귀인(歸因)의 성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며, 통제와 효능성의 정도를 과장해서 추정하곤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은 고유하고 자신의 의견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지된다고 생각한다.

(다)

반대로 사람들이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증거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확인하려 노력하고, 자기개념과 괴리가 있는 피드백을 반박하고, 자기개념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회피하기까지 한다. 사람들은 왜 자기 일관성을 추구할까? 자기 통합감을 확인하고 미래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가 일관되지 못하고 변화가 심하거나 내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하면 통합된 자기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예측이 어려워져서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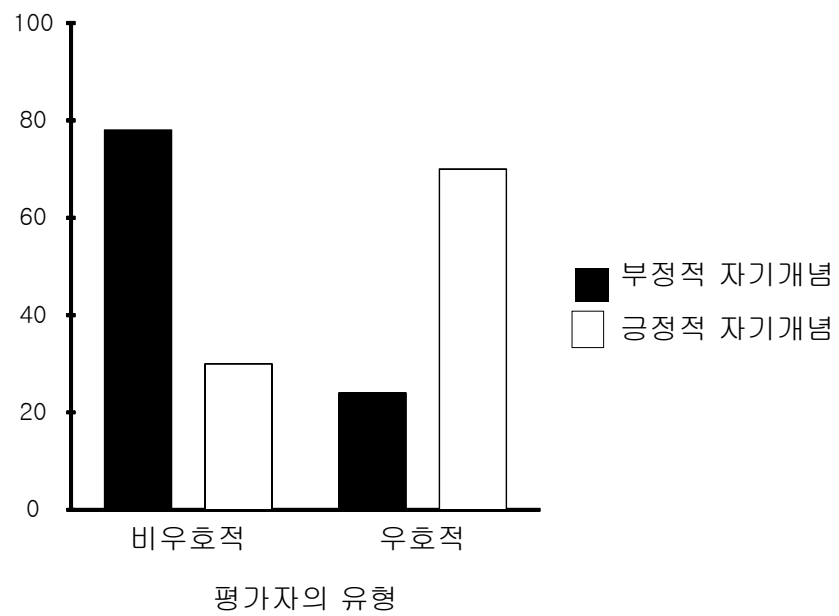
[2] 다음은 자기개념과 관련된 동기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절차와 결과를 소개하는 글이다.

(가)

Swann과 동료들은 한 연구에서,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실험참가자(피험자)들과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실험참가자(피험자)들에게 자신들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 혹은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상대방 중에서, 나중에 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평가 상대방은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평가자였고, 미리 작성한 호의적인 평가문과 비호의적인 평가문을 실험참가자(피험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나)

아래 그림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피험자)이 자기와 대화할 상대방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대화 상대에 대한 선호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2차 논술 출제 의도

### [문제 1]

[문제 1-1]은 세 개의 용서 관련 제시문들을 비교·대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큰 무리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을 비교·대조할 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은 수험생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라고 하여 그 기준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비교·대조해 가면 된다. 만약 수험생이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다.

제시문 (가)에서는 가해자가 타인에게 잘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경우의 용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이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그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본다. 제시문 (다)에서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여김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그런 경우에도 용서가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용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술하면 된다.

[문제 1-2]는 우선적으로 제시문 (라)를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를 판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지수’와 ‘데이브’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글을 제대로 읽은 수험생이라면, ‘지수’와 ‘데이브’, 두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개인의 성격 탓이라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술하면 된다. 물론 제시문 (라)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제 1-2]는 ‘지수’와 ‘데이브’가 용서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 앞의 [문제 1-1]에서 (가), (나), (다)의 서로 다른 용서에 대해 비교 대조해 보았으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라)와 연계하는 글을 쓰면 된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가), (나), (다)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선택한 용서의 방안이 ‘지수’와 ‘데이브’의 용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기술하면 된다.



**[문제 2]**

제시문의 그림은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일관성 동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관성을 추구한다면 낮은 자존감을 확인하는 부정적 평가자를 받아들이려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 관한 호의적인 견해를 원한다면 긍정적 평가자를 선호할 것이다. 그림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보면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비우호적인 평가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일관성 동기가 자기고양 동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우호적인 평가자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개념과 일관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정보를 발견하려는 욕구에서 나온 자기고양 동기를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자기개념을 지닌 사람들의 결과만으로는 자기 일관성 동기와 자기고양 동기 중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셋째, 만일 사람들에게 자기고양 동기가 더 중요하다면,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비우호적인 평가자보다 우호적인 평가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기고양 동기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